

서호인의 '소설처럼'



여러모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술하게 벌어지는 2022년의 선거판이지만 그중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무관심이다. 후보도 유권자도 미디어도 우리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를 논하지 않는다. 대통령 하나로 바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니, 그보다는 눈앞에 더 환하고 밝게 보이는 또 다른 고통과 불안이 더 생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탄소 중립이니 기후협약이니 재생에너지니 하는 것보다 취업과 부동산과 주식 시장 같은 당장의 것들에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나 기성세대라면, 시차를 두고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일어날 재앙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미래 세대에게 더 존재인 위기이다. 심지어 그들은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다. 태어나서 기껏 20여 년을 살았는데, 지구는 이미 병들었다. 인류는 짧은 시간에 치솟은 지구의 평균온도를 다시 내리기는커녕 올라가는 속도를 제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에서의 원전 사고는 물론 저 멀리 아마존에서의 자연 파괴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앞으로의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야 할 땅이, 바다가, 그 모든 게 근미래에 망가져 버린다면 그 비현실 같은 현실을 살아야 할 짧은 세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를 위해 -조해진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

대에게 부동산과 압호화폐와 아파트와 일자리가 무슨 대수일까? 그들은 그것들을 누리 보지도 못한 채, 그것들이 허공에 사라지는 꼴을 봐야만 하는 곤경에 처했다.

조해진 소설집의 제목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과연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가 있을까? 작가는 미래라는 단어 앞에 '가능한'이 아닌 '허락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책의 도입부에 짝꿍처럼 놓인 단편 'X-이경'과 'X-현석'은 그 허락된/허락되지 않을 앞에서 무력한 인간을 그린다.

태양계 밖 거대 행성이 수천만 년 만에 태양계로 접근하면서 위기는 발현된다. 궤도가 형클어진 소행성 중 하나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확률은 4분의 1.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뉜다. 현재의 삶을 놓아 버리거나,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거나. 두 유형은 하나의 인간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경과 현석은 소행성의 충돌 예상 시간을 얼마 앞두고 아침을 차려 먹기로 한다. 미래가 허락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때문일까. 아니면 인간으로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일지도 모른다. 소행성의 충돌은 그다지 절망적 미래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불확실하기에 인간은 어쩔할 도리 없이 그것을 맞이한다. 운

명이라는 단어에서 '명'만 삭제한 채, 운에 기댄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다르다. 책의 마지막 수록작 '클로즈드'(closed)의 명명은 과학기술로 유예된다. 소설에서 인류는 빙하와 동토의 해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끝에 다다른다. 잇따른 지진으로 원자력사고가 일어나 방사는 수치는 치솟고, 식량과 자원은 고갈되고, 국가도 사라진다. 남은 건 과학자들의 설계로 만들어진 폐쇄형 동굴,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동토 과학자들은 생체기술을 통해 죽지 않는 삶으로 진입한다. 태평양 한 가운데 위치한 동은 그러니까, 마지막 인류 몇 명 정도가 영원히 살아가는 지상낙원 혹은 고립된 지옥도가 된 셈이다.

그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의 인류가 우선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소설은 물론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소설은 짧은 이야기 몇 편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듯 묻는다. 우리에게 허락된 미래가 있느냐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미래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선거마다 투표하고 누군가를 지지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그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그걸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 보인다는 게 진정한 문제이긴 하지만. <시인>

社說

오미크론 대확산 설 고향 방문도 자제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광주·전남에서도 6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대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1만 3012명이었다. 전남 8571명보다 50% 이상 증가했고, 지난 20일 6601명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이 같은 확산 속도는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의 전파율을 델타의 2.5배로 가정했을 때 확진자 수가 이달 말 7200~8300명, 내달 말 3만1800~5만220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지난주 50.3%의 검출률을 기록하며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져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미크론이 일찌감치 우세종이 된 광

주·전남과 경기 평택·안성은 어제부터 방역·의료 체계가 바뀌었다. 감염 취약층에 진단과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 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유행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은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맞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고향 방문이나 여행·모임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방학 중 급식 제공을

광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이 겨울방학 동안 운영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의 점심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돌봄교실의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147개교가 초등 1~2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초등생 6100명가량이다. 한데 이중 44개 학교만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 102개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방학 기간 중 급식은 무상급식에 해당하지 않아 돌봄교실의 점심은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이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방학의 경우 매식과 도시락 지참 중 선택권을 보장해 준 학교

도 있었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는 이마저도 없어졌다"고 했다.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 출근 시간에 학생의 도시락을 싸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방학 중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것은 사실상 키우려면 직장 다니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한다. "행정적으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찾아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 양육은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는 주원인이다. 우리 사회의 난제인 아이 낳기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돌봄 교실의 점심을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 로컬푸드로 해결하는 등 돌봄교실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고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2021년 10월 21일 최초로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다. '불발탄'이 됐지만, 대한민국 우주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누리호 발사는 선진국 기술을 모방했던 추격 국가의 종언을 고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사상 유례없이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상승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70여 년 만에 선진국이 됐다. 구호 대신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선진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42년간 유지됐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비로소 추격 국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지 못했던 우주 영토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우주 시대를 주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우주산업은 IT, 기계, 소재, AI,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기술,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명의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새로운 '뉴 스페이스'(new space)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CES에서 만나다

할 것인가. 추격과 모방에 익숙했던 기성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선봉장이 될 수 없지만, 전환의 시기를 이끌어주는 길라잡이는 될 수 있다.

시대적 대전환의 기로에서 우리나라 기술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때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한 CES 2022에서는 국내 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 국내 기업 500여 개가 참여한 CES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 과기정통부 차관 등 공무원,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다녀왔다.

이번 CES에서 돋보인 분야는 단연, 우주항공 분야였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 설치된 미국 우주항공기업 시에라 스페이스(Sierra space) 전시관 앞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 산업이 3500억 달러 이상, 2040년에는 1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에라 스페이스는 민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투자 가치를 위해 우주항공 분야의 플랫폼 역할을 자처한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우주산업이 기술 강국을 나누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CES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의한 박람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참여 기업 수만 해도 다른 나라를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방역 상황에 위급 수치가 높아진 나라들이 많아졌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

문이다.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의 성과에 더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과 새로운 도전이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CES 2022의 스타트업 기업 전시 공간 가운데 서울관이 눈길을 끌었다. 역대 가장 많은 혁신기업 25개사가 참여했는데, 이 중 6개사가 'CES 2022 이노베이션 어워드'에 선정됐다.

또한 삼성, SK, 현대, 두산 등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미래 기술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선진 국가의 역량이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구현하는 창의와 기획에 있음을 세삼 확인했다.

그 밖에도 광주를 비롯한 대덕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도 주목받았다. 특히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등 디지털·IT 기술을 비롯해 실내용을 응용한 태양광조사 개발 기술, 자율 주행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의 향연이 펼쳐졌다.

프랑스는 수년 전부터 국가관을 열어 자국의 과학기술을 전시했다고 한다. 서울관의 성과처럼 광주를 비롯한 전국 지역 중소기업들이 부담없이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번 CES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향한 공은 정치로 넘어왔다. 대전환의 시대, '어떠한' 정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앞날이 달려 있다. 정치의 실력이 중요한 순간이다.

의료칼럼



김윤하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센터장

일요일 아침 7시30분께 잠이 덜 깨 비몽사몽 하던 차에 병원에서 당직 전공의로부터 전화가 왔다. 왠지 불안한 기분을 안고 받았더니 "큰일 났습니다. 만삭 전 조기 양수 파열로 입원 중인 임신부에게서 태질이 질로 빠져 밖에서 보입니다. 아기 심장 소리도 작아집니다." "당장 수술 준비 하고 수술실로 옮기세요. 곧 출생하겠습시다."

임신과 출산을 주로 다루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휴일은 없다. 대학병원 원로 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하루 24시간, 365일이 응급 당직이다.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부리나케 병원에 도착, 땀방울이 번개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고 수술장 앞 스피드게이트에 도착했다. 한데 출입용 아이디카드가 읽히지 않아 문이 안 열린다. "휴대전화 지갑 속이라 센서가 작동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서두르는 통에 카드가 게이트 너머로 빠져버렸다.

문을 열리고 앉고, 아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잠깐 사이 수많은 생각이 지나쳤다. 마음은 급하고 할 수 없이

분만 투혼

게이트를 넘어가기로 결정했다. 1m 정도 되는 높이인데 톱 크루즈 정도 실력은 아니어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지만, 겨우 올라간 후 작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찔! 왼쪽 발목이 지끈거린다. 시멘트 바닥에 충격이 심했던 모양이다.

질땀겨리며 황급히 수술실로 올라갔다. 그 사이 수술장으로 옮기는 중이라는 연락이 오고 제왕절개술을 시작, 7시 50분께 분만이 이뤄졌다. 골든타임 내 분만이다. 조산이라 울음소리가 시원하지 않지만 다행히 태아 심장은 잘 뛰고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전해준다. 살았다!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태반은 태아의 호흡, 영양 공급,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합성 등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임신부의 핵심축이다. 자궁 동맥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분이 태반에 전달되며, 이들이 땀줄을 통하여 자궁 내 태아에게 공급된다. 즉 땀줄은 태아의 생명줄이다. 땀줄이 태아 머리, 발, 손 등에 눌리거나 꼬이거나 당겨지거나 하면 태아 심장 소리에 이상이 온다. 일반적으로 분만 중 전자태아 심박동 감시장치를 통해 태아 심장 소리의 이상 여부를 체크하게 된다.

이렇게 귀중한 땀줄이 질 밖으로 빠지다니(땀줄 탈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상상이 될 것이다. 1분 1초의 경각에 목숨이 걸려 있어 처치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사망할 수 있고, 목숨을 건졌지만 태아 머리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즉 뇌성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끔찍

하다. 뇌성마비는 생후 초기에 발생한 비가역적 비진행성의 운동 및 체위 장애를 말하며 경련이나 정신 지체가 잘 동반되는 탓에 온 가족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말 무서운 질환이다.

신생아는 집중 치료실에서 한동안 입원해 있다가 아무런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왼쪽 발목은 10일 정도 지끈거리며 불편했지만 한 생명을 살렸다는 자부심이 모든 것을 상쇄시켰다.

만약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신생아가 합병증이 있어서 뇌성마비가 온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임신부를 수술하는 것은 엄마와 아이 두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다른 진료 분야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산부인과에 지망했습니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당한 환자를 치료하는 다른 과와는 달리, 산부인과는 일상적으로 임신하고 분만하는 생리적인 상황을 돕는 매력적인 곳이라서 지원했습니다." 1985년 12월 산부인과 전공의 면접시험에서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새해를 맞아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에도 묵묵히 분만실에서 최선을 다해 임신부들을 돌봐 주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많은 관심이 있기를 희망한다.

無等鼓

광양에 사는 94세 화가 김두엽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꽃꽃 시인' 나태주 작가는 할머니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시를 써 내려 갔고 시화집 '지극처럼 그렇게'를 출간할 수 있었다.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93세에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한 미국 작가 모리스 할머니(1860~1961)의 그림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의 그림은 크리스마스카드로 만들어져 1억 장 이상 팔려 나가기도 했다. 그가 남긴 1600여 점의 그림 중 100세 넘어 그린 작품만 250점에 이른

그림의 녹화 시간은 실제로는 몇 배에 달한다. 송해 할아버지는 그 긴 시간 동안 한 차례도 의자에 앉지 않고 줄곧 서서 진행을 했다. 수줍어하는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추임새를 넣으며 함께 노래하고 흥을 돋우었다. 잠으로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본명이 '송복희'인 그는 6·25 때 미 군함을 타고 바닷길을 건너 부산에 도착하면서, 바다 '해(海)'자를 예명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1955년 연예계에 데뷔한 그는 언제나 자신을 격려하는 힘이자 건강의 비결로 '관객'을 꼽았다. 일요일일 12시, 익숙한 시그널 음악에 이어 할머니 화가 로즈 와일러의 국내 전시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95) 할아버지가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한다. KBS는 1988년부터 34년째 전국노래자랑을 이끌고 있는 그를 '최고령 TV 음악 텔레비전 쇼' 진행자로 기네스협회에 등재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래 전 지리산 자락에서 열렸던 전국노래자랑 녹화 현장을 잊지 못한다. TV로는 한 시간 남짓밖에 방영되지 않는 이 프로

'송해 오빠'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전남본부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